

2015. 11. 12. 목요일

대구환경공단 제7호

중 국 환 경 소 식 지

수석대표 이상대 (☎ +86 186-2606-1134 / kktrlove@hanmail.net)
부대표 김기곤 (☎ +86 186-2606-1194 / giraffeland@hanmail.net)
중국 강소성 의흥시 녹원로 501호 환보과기빌딩 B청사 403실. (☎:070-4137-8009)

1. 『2015년 제3회 중국환보기술과 산업발전추진회』가 강소성 이싱시에서 열려

중국 과기부와 장쑤성 인민정부
부가 2015년 10월 28일 ~ 30일
까지 이싱시에서 『중국환보기술
과 산업발전추진회』를 개최하였
다. 이 행사는 올해가 3회로 “과
학기술이 산업발전을 추진한다”
는 핵심이념으로 미래환보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탐구하고 『대중
의 창업. 만인의 창신』이라는
주제로 환보산업의 구체적 표현
을 전시하는 전 분야의 결집과



인식, 공동추진의 장으로서 중국 과기부 및 장쑤성, 각 성 및 시 환보과기 관련 주요인사와 국
내외 학자, 기업인 등 350여명이 참여하여 환보분야의 기술교류와 토론에 참여하였고, 행사 기
간중 개최된 환보기술경진대회에서 대구환경공단의 중국협력회사인 강소필립환보공정유한공사의
소곤곤총경리가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또한, 대구환경공단의 중국환경연수팀 6명(팀장 이수열)도
개막식에 참석하여 한국환경기업 전용전시관에 입주한 10개 기업의 기술을 많은 중국기업에 소개하였다.

2. 중국 『13.5 규획』 건의안 발표

**“생태문명 건설을 핵심안건으로 편입하여 대기오염, 물오염, 토양오염의 예방관리를
강화하므로 환경기업의 발전가능성은 매우높아”**

- 중성장 기조 속 산업 업그레이드 및 금융시장 개방 확대 -
- 연평균 6.5% 성장 및 2020년 1인당 GDP 7800달러 달성 목표 -
- 환경, 에너지, 첨단설비, 프로젝트 관련 산업, 서비스업 등은 여전히 유망 -

※13.5 규획 : 13차 5개년 국가 경제발전계획(2016~2020)

□ 13.5 규획 건의안 발표 개요

- 2015년 11월 3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이하 ‘13.5 계획’)에 대한 건의안(이하 ‘건의안’) 발표
 - 향후 5년 중국 경제발전 로드맵인 ‘13.5 계획’의 세부 내용은 ‘건의안’의 제시에 따라 수정을 거친 후 2016년 3월 양회(전인대, 정협)에서 통과, 발표될 예정
- ‘건의안’은 경제성장, 산업발전, 민생개혁 등 국민경제 및 사회 관련 모든 방면을 포괄하는 발전 방향과 정책 기본노선을 제시
 -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동향유’(共享) 등 5대 발전이념을 제시
 - ‘창조혁신’을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설정, 신형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며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
 -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기본 국가정책으로 삼고 환경보호와 경제발전 간의 조화를 실현할 것을 주문
 - 소득격차를 줄여 경제발전 성과를 전 사회가 향유할 수 있도록 민생개선책, 사회발전책을 제정, 발표할 예정

□ 건의안 주요 내용

- 1) (경제성장) 연평균 6.5% 성장 및 2020년 중국 1인당 GDP 7800달러 달성
 - 건의안에서는 중공 당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는 샤오캉(小康)사회를 전면 실현하고, 신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완성하겠다는 두 개의 ‘중국의 꿈’을 강조
 -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고 강조
 - 2020년 중국 1인당 GDP 7,800달러에 도달해야 하는 목표도 명확히 밝혔음.
 - 중국의 향후 5년 연평균 6.5% 성장은 ‘건의안’에 적시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날 시진핑 주석은 “향후 5년 경제성장률 6.5% 밑돌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실제 샤오캉사회 건설을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최저로 요구되는 성장률 수치
- 2) (도시화) 2020년 도시화율 55% 목표 달성
 - 도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2020년까지 상주인구를 지표로 하는 도시화율이 55%에 도달할 목표를 밝혔음.
 - 징진지(베이징), 창장삼각주(상하이), 주장삼각주(광저우) 등 3대 도시권을 비롯해 동북지역, 중원(中原, 정저우)지역, 창장중하류지역, 청두-충칭, 관중평원(關中平原, 시안) 등 도시권 발전전략을 구체화
- 3) (농업 및 농촌) 농업 현대화와 농촌토지개혁 추진, 식량안전 확보
 - 농업 현대화를 통해 농산물 안전을 확보하고 시장경쟁력이 있는 농산물 생산을 추진할 방침
 -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를 시행하되, 식량생산효율을 제고하고 식량의 ‘절대적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 4) (시장체제 개혁) 금융체제 및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 현 지도부는 2013년의 18기 3중전회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확정한 후, 행정간소화, 시장체제개혁에 박차를 가했음.

- 지난 9월 13일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안에 의거해 2020년까지 국유기업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이루고, 회사 제도의 도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 ‘건의안’은 전력, 통신, 교통, 에너지 등 독점 분야의 개방확대를 통해 시장경쟁체제 완비화를 강조
- 금융체제개혁을 통해 금융시장 발전을 추진하고 금융시장화, 자유화 보폭을 넓힐 계획도 제시

5) (녹색발전) 생태환경 건설, 녹색 발전 강조

- ‘13.5규획’이 5개년 경제개발계획으로는 처음으로 생태문명 건설을 핵심 안건으로 편입
- 대기오염, 물오염, 토양오염 예방관리를 강화할 방침
- 천연가스, 셰일가스 등 신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현재 에너지소비구조를 조정할 예정

6) (산업구조조정)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제조업 업그레이드 병행 추진

-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전략을 통해 중국 제조업의 산업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임을 표명
-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계속 지원하고 국가 차원에서 자금 지원을 확보할 예정
-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추진, 관련 산업의 전문성을 높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업 생태계 구성

7) (대외개방) 위안화 국제화 및 외자유치를 확대

- ‘건의안’은 위안화 SDR 편입 가속화, 위안화 역외거래 확대, 외화관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힘.
- 금융체제 개방폭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폭을 확대하며 금융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도 발표
- 국제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추진하여 내수진작과 대외교역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진
- 외상투자 분야에서 ‘진입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 실현
- ‘일대일로’ 전략, 자유무역 협정 협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해외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에너지 수송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가동할 계획도 제시

8) (민생개선) 소득격차 축소 및 각종 사회보장제도 강화

- 주민소득 향상과 동시에 소득분배 기제에 대한 조정 역할도 강화, 중등소득인구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
-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을 통해 법적 대상인구에 대한 전원 사회보험 부보, 양로보험제도 및 의료보험제도 등의 폐단 개선

□ ‘12.5 규획’과의 비교

○ 큰 틀에서의 ‘질적성장’ 기조는 지속하는 가운데, 중성장 기조 하에서 산업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추진 및 금융시장의 대외개방도 확대 등이 차이점

- 이번 ‘건의안’은 경제와 사회, 경제와 환경보호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함과 동시에 산업수준 업그레이드, 상품 품질 제고 등 질적 성장 강조

- 12.5에서는 주요 지역 발전전략 및 지역별 격차해소 등이 지역개발 핵심이었으나, 지역발전 전

락이 정진지, 창장벨트 등 블록화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같이 대외개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임.

○ 금융의 대외개방 가속화 및 위안화 국제화 본격 추진

- 중국 정부는 '12.5 계획' 기간 동안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을 위한 기본 여건이 성숙됐다는 판단 하에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
- SDR 편입 가속화,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체계에서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지로 분석. 장기적으로는 위안화의 기축통화 역할을 위한 시장 여건 마련

□ 전망 및 시사점

○ 중고속 성장 기조속 산업구조조정 및 금융개방 확대 노선 재확인

- 2020년까지 중국은 본격적인 '샤오강 사회'건설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향후 5년 연 평균 최저 6.5% 이상의 성장을 추진할 전망
-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하는 가운데 도시화를 제고와 환경오염 및 에너지 절감 추진, 개인 소득 향상 속 분배 및 보장제도 개선 등을 정부의 목표로 제시
- '건의안'을 통해 중국 정부가 경제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제조업 2025, 인터넷 플러스 등을 통한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와 위안화의 국제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시장의 질적인 개방도 제고로 요약됨.

○ 환경, 에너지, 첨단설비, 프로젝트 관련 산업, 서비스업 등은 여전히 한국 기업이 주목할 분야... 세부 내용은 내년 최종내용 통과를 확인해야

- 이번 건의안을 통해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산업 관련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 여전히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 및 수출기회가 많은 분야
- 이외 첨단설비, 프로젝트, 서비스업 관련 분야도 중국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로 내년 3월 양회 통과 내용 관측 필요

3. 중국 출장시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중국환경소식지에 중국의 문화, 제도, 법률 등을 시리즈로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사업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이번호는 중국 출장시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기후

국토의 대부분은 전반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풍기후이나 지역이 광활하여 아열대에서 냉대까지 기후분포가 다양하다. 동북지방은 겨울이길고 여름이짧은 반면, 남부지방은 여름은 길고겨울이 짧으며 동부연해지방은 사계절이 분명하고 온난다습한 기후이다.

특히 남부의 하이난성(海南省)은 연평균기온 24°의 아열대 기후인 반면, 북부의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연평균기온 4°의 냉대기후권에 속하는등 남북으로 큰기후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서

쪽의 칭하이(青海), 티베트(西藏), 위구르(新疆)지역과 내몽고(內蒙古) 지역은 고산기후 및 건조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지역 날씨관련 APP, ‘墨迹天氣’: 중국주요도시의 날씨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일기예보 및 현재온도습도 등을 알수있다.

나. 시차/근무시간

1) 시 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1시간(중국전역이 베이징표준시 사용)으로 한국보다 한시간 늦다. 중국은 미국이 지역별로 시차를 달리하는 것과 달리 모든지역은 동일한 시간대가 적용되고 있다.

2) 근무시간

일반직장의 근무시간은 대체로 08:30~17:30 (‘95년5월1일부터주5일근무제실시)을 기준으로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동계약법에 의해 1일8시간근무, 매주 평균근무 40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관공서의 근무시간은 일반적으 로08:00~11:30, 13:00~17:00이나 정부기관마다 차이가있어 베이징시 공안국은 월~토요일09:00~11:30, 13:30~16:30, CCPIT(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08:00~11:30, 13:00~16:30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은 09:00~16:00으로 일부 개인대상업무는 토요일에도 하고 있고, 백화점 영업시간은 백화점마다 다소 차이가있으나 대부분 09:00~22:30이다. 일부 남방지역의 경우 점심시간후 30분정도 낮잠시간을 가지는 곳도 있다.

다. 도량형

1) 도량형

중국은 국제표준미터법을 법정도량형으로 채용하고있으며, 현재 사용되고있는 고유의 일부측량단위는 비(非) 법정도량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전기규격

50hz, 220v가 공급되고 있으며, 대도시 전력사정은 양호하나 최근전력난으로 일부지역의 경우 제한송전을 실시하고 있다.

플러그 형태는 매우다양하며 십일자형, 3-pin형이 일반적으로 쓰임. 또한 홍콩등과 같은 일부지역의 코드모양은 한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제품 사용시 어댑터가 필요하다.

라. 환율/환전

1) 화 폐단위

- 화폐단위: 인민폐(人民幣); 런민비(RMB); 위안(元)
- (지폐)1角, 2角, 5角, 1元, 5元, 10元, 20元, 50元, 100元
- (동전) 1分, 2分, 5分, 1角, 5角, 1元

- 1元(위안) = 10角=(지아오) = 100分=(편)

2) 환전장소

달러와 인민폐간 환전은 은행, 백화점, 호텔내에서 모두 가능하다. 단 중국현지에서 우리나라 원화와 인민폐간 환전이 쉽지않으므로 출국전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국은 위조지폐가 상당히 많으므로 암거래상을 통한환전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 환전장소

- 은행이나 호텔내에서도 가능

- City은행(华为银行) 국제현금카드가 있다면 City은행 ATM을 이용하는 것이 환율에유리함.(단, 중국에서는 화치인항이라 해야 알아들음)

- 중국은행 ATM에 한국의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넣고 뽑으면 중국화폐로 출력됨.

○ 유의사항

- 공식환전장소(은행, 호텔)가 아닌 관광지나 길거리등에서의 음성적인 환전(암달러상)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높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음.

마. 국내및국제전화

1) 전화연결방법

□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는 법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화시 KT의 108821, 1082821(남방지역) 또는 데이콤의108828, 1082828 (남방지역) 한국통화서비스를 이용하면 한국안내원을 통해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화하는법

○ 통신사국제번호(001/002/005/00700/00365) + 86(중국국가번호) + 지+역번호+ 가입자번호 (지역번호의 첫째자리 '0'은 누르지 않는다).

□ 호텔룸→한국으로 전화할때(IDD)

○ 외부번호(대부분9번)를 먼저 누르고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

2) 중국에서 휴대폰 사용

중국출장이 잦은분이라면 현지에서 중국핸드폰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국바이어나 한국에 있는 지인과 연락할 때 편리하다. 핸드폰단말기는 200위안대부터 고가제품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선택의 폭이 매우넓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하는것(보통월말결제) 과 사용할때마다 충전하여 사용하는 휴대폰이 있다.

단말기를 구입한후 핸드폰번호 구매시 충전식 번호를 사용하면 되는데, 충전용카드는 길거리의 신문판매대, 간이상점에서 구매가능하다.

3) 우편물발송

우편물 발송은 특송우편(DHL)이나 일반우체국을 이용할 수있다. 특사우편은 한국과 연해 도시간 요금이 무게에 따라 다르며 서류발송시100~200위안정도이다. 우체국 이용시 이보다 훨씬 저렴하다.

바. 여행시 유의사항

1) 숙박 관련 유의사항

중국내에서 외국인이 임시로 숙박하고자 할때, 반드시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경고 또는 50~500위안의 벌금을 부과 할수 있다. 중국내에서 외국인이 호텔, 학교, 회사 및 기타장소에서 숙박하고자 할때, 여권 또는 체류증명서를 제시하고 임시숙박등록을 기록해야한다.

2) 외환소지 관련 유의사항

외국인이 미화5,000달러 상당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중국출입국시에는 반드시 해당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5,000달러미만휴대시신고불필요)

□ 소지총금액이 화5,000~10,000 달러 상당일 경우

총금액미화 5,000~10,000달러(1만달러포함)를 가지고 출국시에는 사전에 여권, 사증등 유관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휴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관은 동휴대증에 근거하여 출국을 허가한다.

□ 소지총금액이 10,000 달러 이상일 경우

우선 상기와같이 은행에서 ‘휴대증’을 발급받은 뒤, 은행소재지 외환관리국에 허가신고를 해야한다. 해관은 은행과 외환관리국의 도장이 찍힌 ‘휴대증’을 근거로 출국을 허가한다

3)교통사고 발생시 일반적인사항

○ 전화신고: 사고발생즉시 122 혹은 110으로신고

○ 현장보존 및 증거, 증인확보 : 목격자, 인명피해정도, 차량파손상태, 관련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등을 확인기록

○ 보행자 사고의 경우

- 사고충격지점, 부상부위, 주변에 횡단보도, 육교, 신호등 설치여부등 확인

- 보행자사고의경우사고발생지점확인매우중요

○ 택시승객의경우

- 택시승객은 일방적인 피해자가되어 택시회사나 기사가 보상책임을 부담

- 택시번호, 기사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확보

○公安측의 처리

- 현장도착후 신원파악 및 현장조사~ 도착하기전까지 현장을 보존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을 감수해야함

-公安은 사고혐의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당사자의 면허증을 압수할수 있음

- 사고조사후 누구의 과실이 몇%인가를 결정하며 그내용을 사고당사자에게 통보

-公安의 1차조사내용에 이의가있을시는 상급공안기관에 이의제기 가능

○ 보험회사의배상관련안내

- 사고발생후 보험회사에 통보, 쌍방향의된 경우 본인이 통보여부결정

- 음주, 음독약물복용, 뺑소니, 무면허운전등은 보험미적용